

1979년 8월 16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전라남도내의 192개 국민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국민학교 보건시설 및 건강평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들의 교육경력은 3년이하가 과반수이상(66.7%)을 차지하였고 과반수이상(60.9%)이 임상경험이 없었다.

2. 학생수는 2,000명미만이 7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양호실의 크기는 19평이하가 과반수이상(64.0%)을 차지하여 국민학교 시설기준령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3. 보건시설 및 비품구비는 양호실 비품이 19개이하가 86.4%, 신체검사용기구는 14개이하가 80.3%, 처치용기구는 9개이하가 78.6%, 구비된 약품으로는 14개이하가 88.0%, 응급처치함은 4개 이하가 68.2%로 나타났다.

4. 신체검사 실시사항은 체격검사를 모두 실시한 학교가 40.6%, 체질검사를 모두 실시한 학교가 65.5%, 체력검사를 모두 실시한 학교가 44.8%, 혈액형검사를 모두 실시한 학교가 51.6%, 흉부 X-선 검사는 간접촬영을 실시한 학교가 43.8%, 기생충검사를 모두 실시한 학교가 57.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체검사의 철저한 실시가 되고있지 못함을 보였다.

5. 신체검사결과 발견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교육 실시상황은 정상아보다 관심을 두어 가르친다가 64.1%로 나타났다.

서울, 지방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교육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순천간호전문 논문집 제7집, 1982.

송 경 숙

본 연구는 학교 보건 교육중 성교육 실시에 대한 서울, 지방간 남녀 고등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 교육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총 957명으로 서울특별시 내 인문계 남녀 고교생 474명 전라남도 S 시내 인문계 남녀 고교생 4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자기기록식(self-recording)으로 작성된 질문지에 의하여 1982년 10월 13일부터 동년 10월 25일까지 13일 간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1) 연령은 17세가 남학생의 경우 46.0%, 여학생의 경우 53.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2) 가족 형태는 소가족 형태인 경우가 서울시 남여학생 각각 85.5%, 89.1%였고 S시 남여학생 각각 69.3%, 78.4%였다.

(3) 형제(자매)수는 서울시에서 본인외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S시에서는 본인의 5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종교는 무교인 경우가 남여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54.8%, 44.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성교육 실시에 관한 개관

(1) 성교육 실시에 대한 견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우가 남여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88.0%, 89.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남학생에서 서울시 1.3%, S시 2.5%로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비율이 높았다.

(2) 과거 성교육 실시 여부 및 영향에서는 성교육 실시율에서 여학생이 53.3%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시 영향에서 “약간 도움을 주었다”의 경우가 남여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15.7%, 32.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에서 성교육 실시율이 서울시보다 더 낮았다.

(3) 성교육의 목적 인식에서는, 남학생에서 “훌륭한 남녀 관계를 목표로 하여 성습득과 이성간의 건전한 생활을 지도함”의 경우가 44.3%로 가장 높고 여학생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성숙된 성인이 되도록 정신적인 지도를 함”의 경우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여학생의 성교육 목적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서울시와 지방의 남여학생 모두 지식적인 지도 보다는 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지도에 더 높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교육 실시 시기는 중학교 이전에 성교육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남여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32.5%, 34.6%로 나타나 성교육의 조기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볼 때 서울시에서 지방보다 성교육 실시에 더 적극적임을 보여주었다.

(5) 이성교제에 대한 제반 상황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남여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56.6%, 40.2%로 나타났고, 이성교제에 대한 가정에서의 인지 상태는 “아무도 모른다”의 경우가 남여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30.7%, 15.4%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알리지 않은 원인 중 “부모의 이해 부족으로”의 경우가 남여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20.6%, 1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원인에서는 “기회가 없어서”의 경우가 남여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21.5%,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 볼 때 일상 생활에서 서울시 학생이 지방 학생보다 이성에 대해 더 소극적인 면을 보여 주었다.

(6) 이성문제 처리 방법 및 성지식 습득 방법에서는 선배나 친구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남녀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61.1%,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더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신문, 잡지를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남녀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58.5%, 32.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지방이 서울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7) 성교육의 방법과 담당자에서는 체계적인 학교 교육 방법을 원하는 경우가 남녀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48.0%,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지역별로 볼 때 지방에서 서울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 담당자로는 생물과 또는 가정과 교사를 원하는 경우가 남녀학생 총 대상자 중 각각 49.9%,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호교사 역할의 기대도에 있어서는 서울이 지방보다 더 높았다.

(8) 성교육 내용의 요구도 순위에서는 성에 대한 일반적 지식(남녀 성의 차이, 특성) 및 정신적 지도의 내용이, 요구도 순위에서 1위(2.05점)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모두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방 모두 요구 내용에서 같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9) 대상자 저 특성과 성지식 간의 관계에서는 성지식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연령의 경우, 서울과 지방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도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p < 0.01$)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p < 0.01$) 가족 형태와 형제(자매)수에 따른 성지식에 대한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과거 성교육 여부에 따른 성지식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별 혼전 순결에 대한 견해에서는 “혼전 순결은 남녀 모두 꼭 지켜야 한다”는 경우가 남녀학생 총 대상자 중 무교에서 60.7%, 기독교에서 69.9%, 천주교에서 63.9%, 불교에서 60.5%, 기타 종교에서 64.3%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 혼전 순결 유지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서울과 지방의 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철저히 실행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고교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행성있는 세심한 배려를 하여,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이들에게 효율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성지식과 성태도를 확립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강과 신체기능의 발달, 정신 건강, 생활과 건강, 질병과 예방, 국민보건 등, 현재의 실시 상태와 교육 대상자인 고교생들의 요구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은 현재 실정에 알맞도록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본다.